

응답하라! 랜선 놀이 '공원'

남산의 봉수대를 아시나요?

남산공원
역사 1호

옛날에 먼 거리는 어떻게 연락을 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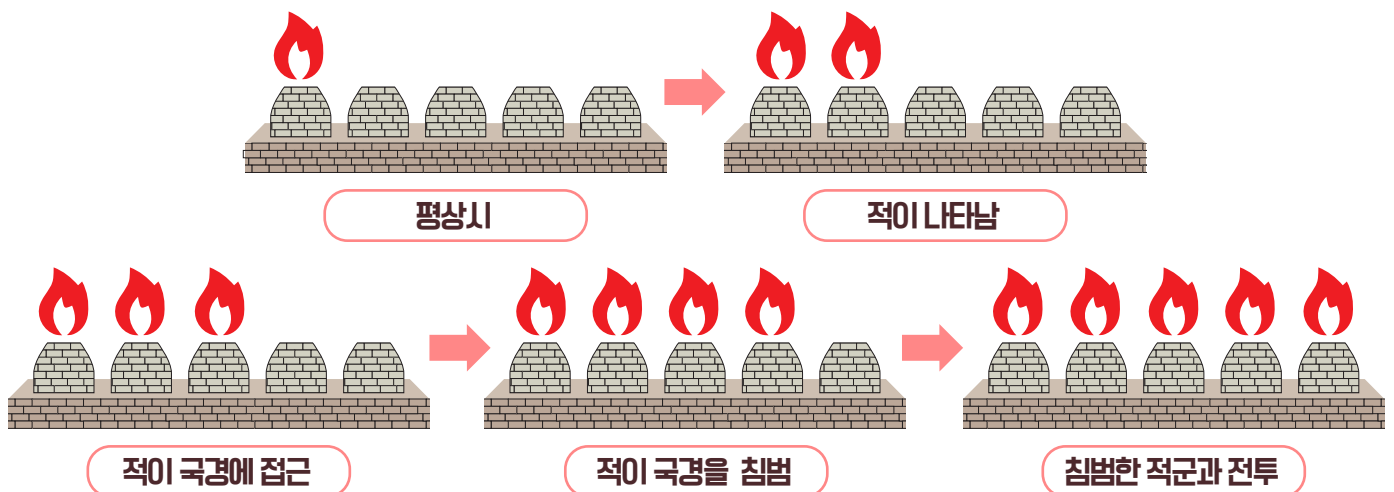
여러분~ 서울의 남산에는 옛날 사람들이 사용했던 통신시설이 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요즘은 스마트한 전화기가 있어 가족이나 친구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쉽게 연락을 할 수가 있지만,
옛날에는 전기도 없고 지금처럼 통신 수단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멀리 있는 사람들과 소통이 필요한
경우 깃발, 북소리, 불, 연기 등을 이용했다고 해요. 남산에는 그 통신 수단 중 하나였던 '봉수대'라는 시설이
자리하고 있어요!

국가의 중요한 통신 수단 '남산의 봉수대'

'봉수대'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옛날 통신수단으로 높은 산 봉우리에 설치하였어요. 그 이유는 나라에 위급한
소식을 아주 빠르게 잘 보이도록 전달하기 위해서였답니다. 봉수대는 전국에 620여 개가 있었고 남산에
있는 봉수대는 중앙 봉수대로 나라에서도 매우 중요한 곳이었다고 해요.

봉수대로 어떻게 위급한 상황을 알릴 수 있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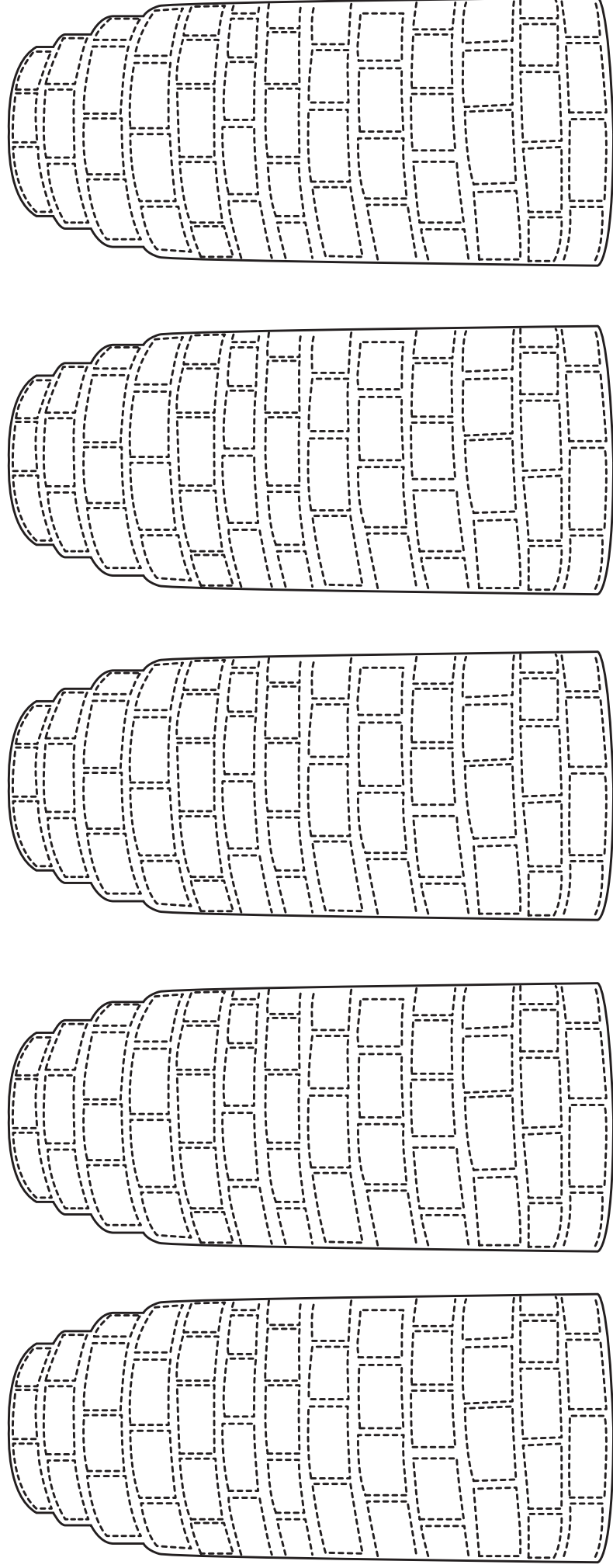
'봉수대'는 낮에는 연기를 밤에는 횃불을 피워 전국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한양에 있는 임금님에게 신속하게
전달을 했다고 해요. 신호는 횃불이나 연기의 개수를 조정하여 위급함의 정도를 나타냈다고 하는데 그림
으로 같이 살펴볼까요?



어때요? 옛날의 통신 방법 너무 지혜롭고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남산에는 남산서울타워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옛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봉수대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주세요~

!공예품을만들고자하는분들을위해
다양한공예품제작방법을소개합니다



만든이: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역사강사 권영철

도움: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코디네이터 김민숙, 공원여가와 김윤희